DBpia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설화의 해석과 교육

The Interpretation and Education of The King"s Ears are Donkey Ears."

저자
(Authors)

이강엽
Lee, Kang-yeop

출처
(Source)

우리말글 75, 2017.12, 265-294(30 pages)
URIMALGEUL : Th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75, 2017.12, 265-294(30 pages)

발행처
(Publisher)

우리말글학회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287093

APA Style

이강엽 (2017).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설화의 해석과 교육. 우리말글, 75, 265-294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8/05 11:12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설화의 해석과 교육

이 강 엽
(대구교육대학교 교수)

〈 차 례 〉

1. 문제의 제기
2. 이야기의 근원과 해석
3. 아동물 재화(再話)의 양상
4. 이야기의 해석과 교육
5. 마무리
<참고문헌>

〈국문 요약〉

이 논문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의 올바른 해석을 통해 교육적 효과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씌어졌다.

첫째,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의 근원이 되는 『삼국유사』와 그리스·로마신화를 살폈다. 경문왕 이야기는 복잡한 등위 과정과, 뱀과의 동침, 당나귀 귀의 변고, 화랑들의 노래 등을 통해 통치 방식을 깨치는 과정이다. 미다스왕 이야기는 왕이 선행에 대한 답례로 황금손을 갖게 되지만 그로 인해 불행이 찾아오고, 자연으로 돌아가 아폴로와 판의 음악 대결에서 판의 음악이 낫다고 평하면서 당나귀 귀의 수모를 겪는다.

둘째, 아동물에서의 재화(再話) 양상에 대해 살폈다. 우선,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에서는 당나귀 귀를 백성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 능력으로 해석하였다. 이런 양상은 교과서 밖의 아동물에서도 확인되는 바, 비밀 누설의 죄를 뒤집어쓰고 궁지에 몰린 약자 측에서 권력자의 선의를 유도해내는 기지를 발휘함으로써 문제를 풀어낸다.

셋째, 이야기의 해석과 교육에 관해 살폈다. 먼저, 이야기 전체를 정합적으로 다룬 작품이 많지 않아 개작자의 의도대로 자의적으로 읽힐 소지가 크다. 다음으로, 문제해결의 주체로 나서는 사람이 임금으로 설정되어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8/05 11:12(KST)

본의에서 벗어나며, 재화 과정에서 디테일을 놓치는 경향이 짙다.

◎ 주제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삼국유사, 그리스·로마신화, 경문왕, 미다스왕, 재화, 설화교육

1. 문제의 제기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는 이른바 광포(廣布)설화이다. 흔히 『삼국유사』의 경문왕과 관련한 이야기로 알려져 있지만, 그리스신화의 미다스왕 이야기와의 유사함 때문에 더욱 유명해졌다. 이에 힘입어 패러디 형식을 띤 시나 소설로 여러 차례 차용된 바 있으며[1], 특히 아동 독서물 시장에서 인기가 높다. 그러나 아동용이라는 제약 등을 이유로 변개를 거치게 되면서 원본의 미덕을 상실하기도 했다. 다 아는 대로 『삼국유사』나 그리스신화에서의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부분은 거의 삽화수준의 짧은 내용이다. 임금의 귀가 당나귀 귀처럼 커진 비밀을 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어딘가에 가서 그 이야기를 털어놓았다는 간단한 서사로, 말하고 싶은 욕구를 충족해야 하는 당위성을 강조한다. <이야기주머니>로 명명되는 유형의 이야기들에서 보듯이[2] 이야기를 막아두면 문제를 야기한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를 말하고싶은 비밀에 초점을 둘 경우, 이야기 주체는 비밀을 지켜야하는 복두장이(혹은 이발사)가 된다. 그러나 이

* 이 논문은 2016년도 대구교육대학교 특별연구과제 연구비 지원으로 연구한 것임.

1) 이에 대해서는 심치열(2005), 「『삼국유사』 소재 설화의 서사적 계승 연구 -경문왕 설화를 중심으로-」(『국어국문학』139, 국어국문학회)에서 다루어진 바 있으며, 주요작품으로는 방귀환의 <귀>, 이제하의 <임금님의 귀>, 이청준의 <소문의 벽>, 현길언의 <대숲에 바람이 불면> 등이 거론되고 있다.

2) 한국구비문학대계의 유형분류에 따른다면 '633-11 이야기 주머니' 유형이 그 예이다. 이에 대해서는 조동일 외(1989), 『한국구비문학대계 별책부록(Ⅰ) 한국설화유형분류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539쪽 참조.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8/05 11:12(KST)

야기의 방향을 틀어서 비밀을 엄수하도록 명령하는 사람, 곧 경문왕(혹은 미다스왕)으로 돌리면 전혀 다른 양상을 띠게 된다. <이야기주머니>를 두고 "기본적으로 서당이라는 문자문화 재생산의 공간에 있는 학동이 이야기를 듣기만 하고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문제를 삼는다."[3]고 한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누군가를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억압하는 상황이 존재하며,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에서는 왕이 그 역할을 한다. 임금과 복두장이는 상하관계를 이루어 불합리한 복종을 강요하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의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는 그런 단순한 분석을 용인하지 않을 만큼, 앞뒤로 풍성한 이야깃거리를 달고 있다. 왕의 귀가 커지기 전의 상황을 아주 충실하게 담아내고 있는 바, 그 전체 이야기를 완형(完型)으로 볼 때, 임금님 귀가 커진 후 그 비밀을 발설하는 부분은 하나의 삽화(揷話, episode)에 지나지 않는다. 이 삽화만을 중심에 두고 '억압자/피억압자'의 대립에 관심을 두는 해석과, 이 삽화 전후의 내용들을 정합적으로 맞추어 전체 서사 속에서의 온전한 해석은 달라지게 마련이다. 그러나 실제 재화된 아동물들을 보면, 억압자인 왕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재편되고, 귀가 커지기 이전의 문맥들은 생략되거나 심하게 축약되어 본의를 잃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4] 이런 논의들은 '당나귀 귀' 부분의 변이에만 집중함으로써 정합적으로 풀어내는 데

3) 심우장(2012), <이야기주머니>항, 『한국민속문학사전 : 설화 2』, 국립민속박물관, 607쪽.

4) 이 이야기의 개작, 특히 당나귀 귀를 백성의 말을 잘 들을 줄 아는 어진 임금의 귀로 재구(再構)하는 데 대해서는 혹심한 비판이 있어왔다. 비판능력이 부족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여 의미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본 조희웅(1994)을 필두로 하여, 이야기의 손질이 "아무래도 횡포에 가깝다고 해야할 것"이라는 혹평을 한 서정오(1995), '역사적 조작'이나 '봉건적 가치관의 주입'으로까지 규정한 정운기(1996)나 홍순철(1996)의 사례가 속출했다. 조희웅(1994),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설화」, 이상익 외, 『고전문학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집문당 : 서정오(1995), 『옛 이야기 들려주기』, 보리 : 정운기(1996),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의 구조와 지도 방안에 관한 연구」,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홍순철(1996), 「전래동화에 나타난 봉건적 가치관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8/05 11:12(KST)

한계를 지니는 것으로, 전체 이야기를 정합적으로 해석해낸 논의를 근거로 한 교육적 해명이 필요하다.

이 논문은 이런 문제에 착안하여, 원본격인 『삼국유사』와 그리스신화에서의 의미를 파악해본 후, 그 재화과정에서의 변이를 살피고, 그를 통해 좀 더 바람직한 교육 방향에 대해 가늠해보기로 한다.

2. 이야기의 근원과 해석

1) 『삼국유사』 <경문대왕>

『삼국유사』「기이(紀異) 이(二)」편에 있는 <제48대 경문대왕(第四十八代景文大王)>조(條)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삽화를 중심으로 크게 네 단락으로 구성된다. 첫째 단락은 주인공인 경문왕이 왕이 되기까지의 우여곡절을 그린 부분이며, 둘째 단락은 왕이 된 후 뱀과 함께 자는 기이한 행태를 담은 부분이고, 셋째 단락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삽화이며, 넷째 단락은 화랑들이 노래를 지어 바쳐 왕이 기뻐하는 부분이다. 일연이 설정한 한 조목(條目)의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들은 거개가 셋째단락만을 떼어 논의함으로써 전체맥락에서의 의미를 놓치기 일쑤였는데[5] 이제, 논의의 편의를 위해 이 네 단락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헌안왕이 화랑 응렴을 보고 세상일을 묻자, 응렴은 겸손한 사람, 검소한 사람, 위세를 부리지 않는 사람을 꼽는 걸 보고 사윗감으로 정한다. 응렴이

5) 일례로 텍스트의 변형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이은규(2014)에서도 <경문대왕> 설화를 전체를 네 단락으로 나누면서 '①왕의 귀가 갑자기 길어져 나귀의 귀처럼 됨'에서 '④대나무 숲을 베어 버리고 산수유를 심었지만 바람이 불면 여전히 그 소리가 남'(237쪽)까지만으로 떼어냄으로써 그 이외의 부분을 사상시키고 있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8/05 11:12(KST)

집에 돌아가 이 일을 말하자 집에서는 미인인 둘째딸을 고르라 하고, 범교사가 첫째공주를 택하면 세 가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 하자 응렴은 범교사의 말대로 한다. 헌안왕이 죽은 뒤 응렴이 왕이 되어 범교사에게 큰 상을 내린다.

(나) 왕이 잘 때면 저녁마다 뱀들이 모여들어 사람들이 두려워서 쫓아내려 했지만 왕은 뱀이 없으면 편히 잘 수 없다며 가만 두게 했으며, 뱀들이 혀를 빼서 왕의 가슴을 덮은 채로 잤다.

(다) 응렴이 왕위에 오른 후 귀가 갑자기 커져 당나귀 귀처럼 되었는데, 복두장이가 그 비밀을 알고는 죽기 전에 대나무숲에 가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고 말했다. 그 뒤로 바람이 불면 그 소리가 났고, 왕이 대나무를 베고 산수유를 심게 명령하여 그대로 시행했는데, 그 뒤로는 “임금님 귀는 길다.”는 소리가 났다.

(라) 화랑 셋이 모여 놀다가 나라를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는 노래 세 수를 지어 왕에게 바쳤고, 왕은 그것을 사지(舍知) 심필(心弼)을 통해 대구화상(大矩和尙)에게 보내 곡을 만들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현금포곡(玄琴抱曲), 대도곡(大道曲), 문군곡(問群曲) 세 곡이 완성되었으며, 왕은 이 노래를 듣고 기뻐했다.

단락 (가)는 바깥세상을 궁금해하는 임금에게 응렴이 자신이 보고들은 것을 이야기하는 대목이다. 주목할 점은 여기에서 말하는 세 가지 행실이라는 게 그리 특별하지 않다는 점이다. 꼭 유교 윤리가 아니더라도 보편적 윤리관에 비추어 평이한 행실인데도 임금은 눈물까지 흘릴 정도로 감동하고 그런 보고를 올린 응렴을 사윗감으로 점지하기까지 했다. 이는 당대의 사회지도층 가운데 겸손하며, 검소하고, 위세를 부리지 않는 정도의 소박한 윤리를 실현하는 경우가 그만큼 드물다는 반증이다.

그런데 바로 이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화랑 응렴의 실제 삶이다. 미덕을 실천하는 삶을 보고 임금에게 아뢴 것까지는 좋았지만 정작 자신의 삶은 그에 미치지 못했던 것이다. 임금이 별것 아닌 자신의 행실을 근거로 사위를 삼겠다고 해도 사양하지 않았으며[6], 집에서 예쁜 둘째공주를

6) 『삼국사기』에서는 응렴이 사양을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하여 『삼국유사』의 의도를 가늠해볼 수 있다. 이런 논의를 포함하여 이 조목의 전반적인 해석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8/05 11:12(KST)

맞으라고 해도 수긍하며, 범교사가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라며 맏공주를 맞아야 한다고 하자 이내 뜻을 바꾼다. 그리고 그렇게 임금이 되어서는 본래 마음에 두던 둘째 공주까지 취하면서, 범교사를 포상하기에 이른다.

단락 (나)는 (가)의 어지러운 형국에 대한 반작용이다. (가)의 내용을 애초에 왕이 되기 어려웠던 인물이 어렵게 등위(登位)한 과정으로 본다면[7], 그 탓에 왕의 정치적 입지가 불안했기에 주변을 호위 세력으로 둘러싸지 않으면 불안해했다는 말이다. 뱀들이 혀를 내밀어 왕의 가슴을 덮는다는 내용은 뱀의 속성을 알아야 이해가 된다. 뱀은 본래 시각과 청각 기관이 퇴화해 혀에 느껴지는 진동으로 외부 환경을 감지한다. 곧, 뱀이 혀를 날름대는 것은 외부를 감시하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으며, 경문왕은 소통을 차단한 채 경계를 세워야 잠을 잘 수 있었다는 뜻이다.

이렇게 파악할 때 문제의 (다)가 쉽게 풀릴 수 있다. 『삼국유사』의 원문을 보면 왕의 귀가 "갑자기(忽)" 길어져서 당나귀 귀 같았다고 서술하고 있어서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지만, (가)와 (나) 단락을 통해서 길어진 까닭을 짐작해볼 수 있다. 경문왕은 본디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여러 말을 들어 가까스로 왕이 되었고, 왕이 된 후에는 그 불안함 때문에 일체의 외부 접촉을 끊고 전전긍긍했다. 그러다가 (다)처럼 귀가 길어진 것인데 문제는 그냥 길다고 한 것이 아니라 당나귀 귀처럼 길다고 하였다는 점이다. 당나귀를 포함한 말 종류의 귀는 길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마치 안테나를 사방으로 움직이듯이 귀를 움직여 사방의 동태를 감시하는 것이다.

(나)가 사방을 닫아서 문제였다면, (다)는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사방

에 대해서는 이강엽(2016), 「『삼국유사』 <제48대 경문대왕>조 텍스트의 안과 밖」(『구비문학연구』 43집, 한국구비문학회) 참조.

7) 사실은 응렴의 결혼 과정부터가 단순한 혼사문제가 아니라 복잡한 정치적인 과정으로 볼 수 있어서, 응렴의 집안에서 헌안왕의 제안에 쉽게 결정을 못하고 의견이 분분한 것은 당대 정치세력 사이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서는 장일규(2011), 「응렴의 결혼과 그 정치적 의미」(『신라사학보』 22, 신라사학회)에서 상세히 논의된 바 있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8/05 11:12(KST)

으로 무분별하게 귀를 움직이는 게 문제였다. 경문왕이 당나귀 귀처럼 된 것을 숨기려 했다는 데에서 그것이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님은 확실하다. 그래서 애써 막아보았지만 대나무숲에서 소리가 들렸고, 산수유를 심어도 아주 막아낼 수는 없었다. (나)와 (다)는 아주 상반된 형국이지만 모두 부정적인 형국임은 분명한데, 어디에서든 문제의 해결책 역시 요령을 찾지 못한다. (다)는 모두들 뱀을 싫어했지만 왕은 기꺼이 가까이 두었고, (라)는 근본적인 문제해결 없이 대나무를 산수유로 바꾸는 미봉책을 썼을 뿐인 것이다.[8]

그래서 (라)가 등장한다. 여기에서는 왕이 제대로 된 정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담은 화랑들이 등장한다. 응렴이 그랬던 것처럼 임금을 독대(獨對)하면서 은밀히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뜻을 모아 절차를 밟아나간다. 일단 만들어진 가사가 하위 관료에게 전해지고 그것이 다시 중앙으로 들어가 곡이 입혀져 올바른 치도(治道)에 대해 설파한다. 노랫말은 전하지 않지만, 세상을 포용하는 의미를 담은 악기가 전면에 나서는 '현금포곡(玄琴抱曲)', 큰 도(道)에 이른다는 의미의 '대도곡(大道曲),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묻는다는 의미의 '문군곡(問群曲)'은 그런 정황을 잘 말해준다. 이렇게 만들어진 노래를 듣고 마침내 왕이 기뻐했다는 데서 그간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그리스신화 <미다스>

그리스신화에서 미다스왕 이야기 또한 상당히 복합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닿기만 하면 황금이 되는 손 이야기와 더불어, 판과 아폴론

8) (가), (나) 단락에 대한 고려가 없이 (다)단락만을 중심으로 읽으면 '숨기려는 자'와 '밝히려는 자'의 대립구도에서 "세상에 감출 수 있는 비밀은 없다."는 주제로 귀결되지만, (가), (나) 단락을 고려한다면 지략을 통한 결혼담으로 읽히면서 어렵사리 등위를 하면서 파생된 불안감이 서사의 중심에 서고 당나귀 귀의 괴변은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읽힌다. 이에 대해서는 이강엽(2016), 앞의 논문, 130~135쪽 참조.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8/05 11:12(KST)

의 연주 시합 등이 중층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역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삽화의 앞에 디오니소스 관련 삽화가 첨가되고, 판과 아폴론의 연주 대결이 있다.

(가) 디오니소스의 스승이자 양부인 실레노스가 술에 취해 길을 잃었는데, 미다스가 그를 극진히 보살폈다. 디오니소스는 그에 대한 답례로 미다스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했고 미다스는 자신의 손이 닿는 것은 무엇이든 황금이 되었으면 했다. 디오니소스가 그 소원을 들어주자 세상 모든 것이 그의 손에 닿기만 하면 황금이 되는 통에 굶어죽을 지경이었다. 미다스가 다시 디오니소스에게 그 고통을 호소하자 그 손을 씻어낼 물이 있는 곳을 알려주어 해결해주었고, 미다스는 부귀영화를 싫어하여 들로 들어가 판을 숭배하며 지냈다.

(나) 판은 수금(竪琴)의 명수인 아폴론과 연주 대결을 신청하였고 둘의 경연이 열렸다. 산신인 트몰로스가 심판자로 나서 아폴론의 승리를 선언했으나 미다스는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에 분노한 아폴론은 미다스의 귀를 당나귀 귀로 만들어버렸다.

(다) 미다스왕은 이 사실을 아는 이발사에게 비밀을 지킬 것을 엄명하였으나, 이발사는 초원으로 나가 땅을 파고 그 사실을 속삭인 후 흙을 덮었다. 그 초원에서 갈대가 자라고, 갈대가 스칠 때마다 그 소리가 났다.

(가)는 미다스가 부귀를 팽개치고 초원으로 들어간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황금에는 진저리가 나는 까닭에 자연으로 숨어든 것이다. 이 단락을 그렇게 볼 때 (나) 단락이 제대로 이해된다. 아폴론의 정확한 음률보다 판의 자유로운 음률에 더 마음이 끌렸기 때문으로 해석할 법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아폴론의 수금(竪琴)은 현악기여서 음률에 사람의 목소리를 얹을 수 있지만, 판이 분 피리는 연주를 하면서 노랫말을 얹을 수 없었다. 당연히 전자보다 후자가 비이성적으로 비추어지고, 이 판(Pan)에서 비롯된 '패닉(panic)'만 떠올려도 거기서 비롯된 음악이 얼마나 자유분방한 것인지 알 수 있다. 벌핀치가 기술한 대로 그렇게 "꾸밈없는 멜로디"[9] 또한 사람을 사로잡을 만한 것이어서 취향에 따라 그 우열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8/05 11:12(KST)

(나)에서 아폴론의 신성한 음악을 못 알아들었다는 이유로 미다스는 그만 당나귀 귀의 수모를 겪게 되었다. 당나귀 귀는 좋은 음악을 감별해 내지 못하는 인간 이하의 귀라는 경멸이며 중심 없는 흔들림의 상징이다. “아폴론은 이런 무식한 귀를 이 이상 인간의 귀의 형태로 해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 귀가 크게 늘어나고 안팎으로 털이 나고, 귓불 쪽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였다. 즉 당나귀의 귀와 꼭같이 만들었다.”[10]에서 보듯이 움직이는 특성이 중시된다. 오비디우스의 『변신』에서도 이런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신성한 산신(山神)의 판정과 판단은 모든 이의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미다스의 목소리는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며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델리우스가 그런 아둔한 귀들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참다못해 그것들을 길게 늘이고는 굵고 거친 잿빛 털로 채우고 나서 귀뿌리를 안정성 없이 만들어 움직일 수 있게 해주었다.”[11]는 식으로, 부동성(浮動性)을 당나귀 귀의 특성으로 들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그리스신화의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이야기에서 주인공이 당나귀 귀가 되는 것은 1차적으로 징벌이다. 신의 뜻을 거슬러서 노엽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한 금제를 어긴 데 대한 대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신이 내린 무언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의지를 관철해낸 결과이기 하며, 정확하고 격식 있는 음악에 대한 반발로 볼 때 긍정적인 의미를 갖기도 한다.

3. 아동물 재화(再話)의 양상

1) 교과서 수록과 변개

9) 불핀치(1973), 『그리스 로마 신화』, 손명현 역, 동서문화사, 48쪽.
10) 위의 책, 같은 쪽.
11) 오비디우스(2005), 『원전으로 읽는 변신 이야기』, 천병희 옮김, 숲, 516쪽.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8/05 11:12(KST)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삽화만을 떼어놓고 볼 때, 비교적 간단한 서사인 데다 인체의 일부가 변형되는 흥미로운 이야깃거리가 개입되어 주로 아동물로 많이 읽힌 것은 사실이지만, 원문 전체를 고려하면 해석하기 쉽지 않은 작품이다. 여기에 이야기 이면에 담긴 실제 역사까지 파고들면 이것만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단행본이 있을 정도로 심각한 주제가 되기도 한다.[12] 그러나 실제 이 이야기는 『한국구비문학대계』 등과 같은 구전설화집에서도 그리 많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 구비전승에 의해 그렇게 널리 알려진 것 같지는 않다. 그보다는 국어교과서에 실리면서 교육현장에서 파급력을 보였다. 1989년 간행된 국민학교 교과서 『읽기 2-1』를 보면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 옛날 옛적에 백성을 무척 사랑하는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내 귀가 왜 이래! 꼭 당나귀 귀 같구나.’ 임금님은 머리를 빗겨 주고 관도 씌워 주는 신하를 얼른 불렀습니다. “어서 이 귀를 감추어서 아무도 모르게 하여라. 소문을 내서는 절대로 안 된다.“[13]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서사를 진행하는 열쇠가 되는 법인데, 이 개작은 그 시작을 ‘백성을 사랑하는 임금님’으로 하고 있다. 민담의 기본틀이 결핍된 요소가 나오고 그 결핍을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정을 감안하면, 이 이야기는 백성을 사랑하는 임금이 있었으나 사랑할 수 없는 장애가 등장하고 그것을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되리라 짐작하게 한다. 그런데 이런 진행은 『삼국유사』에서 서술하고 있는 경문왕의 내용과 별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거의 상치된다. 정사(正史)인 『삼국사기』의 기록에도 경문왕에 통치에 대해 크게 우호적인 내용이 없기도 하지만, 『삼국유사』의 경우에는 억지로 왕이 되는 과정과 사람들이 꺼리는 뱀을 곁에 두는 기행(奇行)만을 기록해두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12) 조범환・문왕(2004),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푸른역사.
13)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읽기 2-1』, 교육부, 1989, 46-47쪽.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8/05 11:12(KST)

원본의 이야기는 주인공인 왕이 좋은 통치자가 되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인품과 상황을 기술하고 있는 데 반해서, 이 교과서에서는 애민(愛民) 정신을 갖춘 후덕한 왕으로 기술해놓았다.

더구나 개작된 이야기 속에서도 임금이 백성을 사랑한다고 진술되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는지 사건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있는 어느 신하가 대나무숲에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 소리치고 그 비밀이 온 세상에 퍼지자 왕은 그것이 괴로워 병이 나고 만다. 그리고 이 병을 고치는 사람은 평범한 농부였다. 농부는 임금에게 귀가 큰 것을 감추지 말라며 그것은 흠이 아니라고 했다. "백성을 무척 사랑하시기 때문에 임금님의 귀가 그렇게 커진 것입니다. 귀가 크면 백성들이 하는 말을 모두 귀담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14]라고 진단하였다. 이로써 이야기의 결말이 선명해진다. 임금은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농부에게 큰 상을 내리고 병이 나았으며 백성들의 말을 더욱 귀담아 들어 훌륭한 임금이 되었다는 것으로 이야기가 종결된다.

이 개작의 변화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적어도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삽화의 주인공 역할을 담당했던 복두장이의 역할이 크게 축소되었다는 점이다.[15] 『삼국유사』에서는 임금이 귀가 커져서 병이 난 게 아니라, 임금이 귀가 크다는 사실을 말을 못해서 복두장이가 병이 났다. 심각한 고민의 당사자가 복두장이에서 임금으로 변하면서 이야기의 근간이 무너졌다. 둘째, 귀가 커지는 변고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문제의 방향을 급선회했다. 마치 <3년 고개>에서 "한 번 구르면 3년밖에 못 산다."를 "한 번 구를 때마다 3년씩 더 산다."로 해석하는 것처럼 돌변시킨 것이다. 그러나 『삼국유사』든 그리스·로마신화든 이야기의 시대배경에서 당나귀 귀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면 그렇게 싫어했을 리가 만무

14)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읽기 2-1』, 교육부, 1989, 48-49쪽.

15) '민중'의 관점에서 '지배자'의 관점으로 바뀐 데 따른 문제점은 홍순철(1996)에서 지적된 바 있으며, 김기창(1998)에서는 "임금을 미화"(82쪽)하는 문제를 비판함으로써 이러한 관점의 변화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8/05 11:12(KST)

하며, 이런 해석은 특정한 의도가 들어간 개작임이 분명하다.

교과서 개작자의 의도는 제재의 말미에 붙은 학습문제에서 또렷이 드러난다. “(6) 임금님이 훌륭하게 된 까닭은 무엇인가요?”라는 발문을 붙여두었는데, 이는 본래 백성을 사랑하는 어진 임금으로 등장하면서도, 나중에 백성들의 소리까지 다 귀담아두게 되어서 더욱 훌륭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치려 한 물음이다. 결국, 훌륭한 통치자는 아랫사람의 소리를 잘 들어야 한다는 교훈을 전하려는 것이 개작의 방향이라 하겠으며, 이는 군사독재시절을 거치면서 생겨난 시대적 요청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작에는 이야기가 가지고 있던 본래의 의미, 고유의 미덕을 많이 잃어버린 흠이 있어 아쉽다.[16] 국문학연구의 초기단계에서부터 확인되었던 억눌린 자의 카타르시스라는 주제를[17] 너무도 쉽게 간과한 것이다.

앞서 살핀 대로 『삼국유사』의 원문에 따른다면 주인공 경문왕이 어떤 인품의 사람인지 판단해볼 여지가 충분하다. 즉, 인물과 사건이라는 서사화를 통해 그 인물의 실상에 근접할 수 있게 되었지만, 교과서의 개작에서는 “백성을 무척 사랑하는 임금님”이라는 직접적 진술로 시작함으로써 이야기 수용의 폭을 대폭 좁혀놓았다. 더구나 실제 경문왕 설화만으로 그가 훌륭한 인품의 소유자라거나, 백성을 사랑했다는 표시는 없으므로

16)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과서의 집필자는 이 이야기가 ‘하고싶은 말을 제대로 표출 하지 못하는 데’ 따른 문제임은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 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바로 뒤에 덧붙여둔 제재가 <이야기 주머니>이기 때문이다. 이이야기의 말미에 있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이를 입증한다: “이야기들아, 그 동안 너무 미안했어. 지금부터는 너희들 마음대로 돌아다녀.”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주머니 속에 들어 있는 이야기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 이야기들은 아주 자유롭게 온 세상을 돌아다닐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52쪽)

17) 국문학계에서 이 설화에 관한 가장 이른 시기의 연구에서, 이 설화는 복두장이가 왕이라는 절대자 앞에서 표출욕구를 억눌리어 희생의 제물이 되다가 죽기 직전 터뜨린, “우리 고대사회에서 이루어진 카타르시스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파악되고 있다. - 이관일(1966), 「경문왕 설화와 카타르시스」, 『국어국문학』 31, 국어국문학회, 121쪽.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8/05 11:12(KST)

이 개작은 처음부터 원전의 의도와는 어긋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거기에 '당나귀 귀'의 긍정적 해석을 덧보탬으로써 귀를 드러내길 꺼렸다는 데서 오는 부정적인 내용을 전복하여 '뒤집기'라는 패러디로의 효과는 거두었을망정 설화의 원의(原義)를 놓치고 말았다.

2) 아동도서에서 재화(再話)의 양상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이야기의 개작은 교과서 밖에서 더욱 더 다채롭게 전개되었다. 우선 짧은 이야기를 그림에 담아내는 유아용 도서로도 진폭을 넓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신화를 바탕으로 한 개작까지 가세하면서 여러 변이형을 선보였다. 이렇듯 원본에 중심을 두고 본다면 『삼국유사』 계열과 그리스신화 계통이 있는 것인데 실제로는 양자가 적당히 섞여 있기도 해서 실제로는 복잡한 양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본과의 차이를 근거로 재화(再話) 양상을 양대별하자면, 말을 못하게 막는 억압 탓에 말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 펼쳐지며 원본에 가깝게 다가가는 작품군과, 원의와는 상관없이 당나귀 귀의 특장을 살려 언로(言路)를 열어두는 쪽으로 변개하는 작품군으로 나뉜다. 여기에 아예 뒷이야기까지 덧붙이는 방식의 패러디작품까지 더하면 크게 세 가지 양상이다.

첫째, 원본의 본의를 잘 살린 작품으로 이원수가 개작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작품은 나중에 『한국전래동화전집』이나 『이원수아동문학전집』의 형태로 많이 유포되었지만 맨 처음 발표된 시기가 1963년으로 확인될 만큼 초기 개작으로서의 중요성을 지닌다.[18] 전체서사를 견인하는 도입부를 보자.

---

18) 이 작품의 출판은 이원수(1963), 『이원수 쓴 전래동화집』(현대사)에서 최초로 확인되며, 이후 이원수(1977), 『옛날 이야기』(학문사), 이원수·손동인(1980), 『한국전래동화집』(창비), 이원수(1984), 『이원수아동문학전집』(웅진)에 실려 있다. 이에 대해서는 염희경(2011), 「이원수의 전래동화 연구를 위한 기초 고찰」, 『아동청소년문학연구』9, 아동청소년문학학회, 216쪽 참조.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8/05 11:12(KST)

> 옛날 신라에 한 임금님이 있었는데, 이 임금님에게 우연히도 걱정스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임금님의 귀가 갑자기 자라기 시작하여 하루하루 커가는 것이었습니다.
>
> 하룻밤을 자고 나면 귀는 어제보다 더 커집니다. 나날이 자라서 임금님의 귀는 넓적하고 기다랗게 되어 머리 위에까지 뻗쳐 올라갔습니다.[19]

첫 문장부터 『삼국유사』의 원문을 잘 살려내고 있다. '신라의 임금, 우연히, 걱정스러운 일'이 바로 그 증거이다. 경문왕이라고 밝히지는 않았지만 『삼국유사』 원문에 있는 그대로 신라를 특정했으며, 귀가 커지게 된 것이 '우연히'라고 하여 원문의 '갑자기[忽]'를[20] 살려 영문도 모르게 생겨난 것임을 일러주고, '걱정스런 일'이라고 하여 그것이 변고(變故)임을 확실히 한다. 원문을 아동용으로 쉽게 풀이하는 것 이외에 특별한 변개를 시도하지 않는 것이다. 이 결과, 서사의 결말 역시 원문과 크게 상치되지 않는다. 대나무를 산수유나무로 바꿔 심어도 여전히 소리가 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이 소문을 들은 임금님은 자기 귀가 당나귀 귀라는 걸 온 나라 안에서 이미 다 알게 되었음을 짐작하고 산수유나무를 베어 버리라는 말은 하지 않"고, "커다란 당나귀 귀를 이제는 조금씩 내놓고 지내"며, 사람들은 "당나귀 귀를 가진 사람이 곧 임금님이라는 생각을 하며 살게 된 것"[21]이 덧붙을 뿐이다.

이로써 개작자의 의도는 분명해진다. 즉, 하고싶은 말을 못하는 답답함과, 그렇게 답답한 상황을 강요하는 억압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 작자의 해설을 보면 "진실이 가려지고 가짜나 허위가 진실을 가장할 때, 진실을 남에게 말해 주고 싶다는 인간의 본능은 귀한 것"으로, "그것은 인간의 본능일 뿐 아니라, 이 이야기에서는 대나무나 산수유

---

19) 이원수(1989),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웅진출판, 1989 개정판, 웅진출판, 이원수아동문학전집23), 7쪽.

20) "왕의 귀가 갑자기 커져서 당나귀 귀처럼 되었다.(王耳忽長如驢耳)". 『삼국유사(三國遺事)』, 「기이(기(紀異) 2」, <第四十八代 景文大王> 조.

21) 이원수, 앞의 책, 14쪽.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8/05 11:12(KST)

같은 식물에게까지도 강한 욕구로서 표현되었”고 “임금님의 관을 만든 영감님은 진실을 말하고 싶어한 모든 인간의 대변자로 볼 수 있을 것”[22] 이라 했다. 귀가 큰 사람을 임금으로 여겼다는,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작가의 새로운 해석이기는 해도 서사 자체를 크게 바꾸지는 않고 있다.

그보다 훨씬 더 어린 독자층을 대상으로 한 서정오의 그림책『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23] 역시 서사의 근간을 그대로 둔 채 재미를 살렸다. 작품 속에서는 어머니가 아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을 택하면서 맛깔스러운 구어체를 구사하는데, 그림책답게 유아의 눈높이에 맞게 말의 수준을 조절했을 뿐『삼국유사』의 서사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맨 마지막에는 대나무를 베고 산초나무를 심지만 그 소리가 여전했는데 임금이 베어버리라고 했지만 허사였다. 그리하여 “하하. 그럼 뭐 해? /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라는 건 / 온 나라 백성들이 다 알게 되었는걸.[24]로 마무리하는데, 이 부분이 바로 개작자가 전하고싶은 메시지이다. 특히 결말부에서 이야기를 듣는 아이와, 그 이야기를 전하는 엄마의 그림은 이 그림책의 의도를 극명하게 드러낸다. 맨 처음에 칭얼대던 아이와 빨래하느라 바쁘던 엄마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아이는 아이대로 이야기를 다 듣고는 환하게 웃고 있으며 엄마는 엄마대로 빨래를 마치고 유쾌하게 발걸음을 떼고 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특별한 교훈을 전하겠다는 식의 돌출된 서술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둘째, 원본의 서사를 변형시켜 특별한 의미를 가중시키는 경우는 앞항에서 살핀 교과서의 변개와 맥을 같이 한다. 모자 만드는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해서 병이 났다거나 그 때문에 대나무숲을 찾았다는 점은 같지만, 그 이후의 진행이 사뭇 다르다. 모자 만드는 사람이 목숨 걸고 한 말이 “임금님의 귀가 큰 것은 백성의 소리를 잘 들으라는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하옵니다.”[25]라는 식이다.『삼국유사』의 원본에서 본래

22) 같은 책, 293쪽,
23) 서정오 글 · 한지희 그림(1997),『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보리.
24) 같은 책, 25쪽.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8/05 11:12(KST)

그가 할 말은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라는 '사실'이었으며 뻔한 사실을 표현할 길이 막히지 병이 났던 것이다. 그러나 '은폐된 사실'을 '올바른 치도(治道)'로 바꾸면서 이야기는 아주 달라진다. 그 결과, 임금은 큰 귀를 당당히 드러냈으며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려 애썼고, 백성들은 임금님을 좋아하게 되어 급기야 "당나귀 귀 임금님, 만세!"[26]로 칭송하는 것으로 작품이 마무리된다.

이런 변개는 경문왕 이야기에 근원을 둔 변개 작품만이 아니라 미다스왕 이야기에서 출발한 작품에서도 유사하게 드러난다. 앞서 살핀 대로 미다스왕이 당나귀 귀를 갖게 된 것은 신의 음악이 더 좋다는 평가를 내리지 않은 데 따른 징벌이었으나, 변개된 작품들에서는 정 반대로 해석하기 일쑤이다. 예를 들어, 화가 난 신이 "그것도 귀라고 달고 있어! 내가 네 귀를 잘 들리게 해 주지."[27]라면서 귀를 길게 늘이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인간의 귀보다 당나귀 귀가 더 잘 듣는 귀로 해석된다. 물론 빈정대는 톤으로 읽어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신화에서는 음악을 제대로 감상할 줄 모르는 데 대한 조롱이 있었으며 이는 단순히 청력의 문제가 아님이 분명하다. 적어도 예술성을 해석할 수도 없는 귀라는 함의가 큰 것인데, 이런 작품에서는 도리어 당나귀 귀가 더 잘 듣는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본의를 크게 왜곡하고 있다. 이 결과, 그리스신화에서는 이발사가 미다스왕을 만난 뒷이야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발사는 왕 앞에 가서 "폐하께서 그토록 큰 귀를 가지신 것은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들으시라는 하늘의 축복일 것"[28]이라고 진언하여, "그 후로 임금님은 더 이상 큰 귀를 숨기지 않았고, 백성들을 잘 돌보는 훌륭한 임금님이 되었다고 합니다."[29]로 마감한다.

---

25) 이미애 글 · 이현아 그림(2006)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아이즐, 20~21쪽.
26) 같은 책, 22쪽.
27) 신예영 글 · 유혜광 그림(2011),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새샘, 13쪽.
28) 같은 책, 43쪽.
29) 같은 책, 45쪽.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8/05 11:12(KST)

원본과는 다른 이런 변개는 매우 당혹스럽지만, 아동 도서에서는 오히려 주류처럼 보일 정도이다. 그리스신화의 원본 그대로 아폴로 신을 노출시킨 작품에서도 “미다스, 자네의 귀가 너무 작아 잘 못 들은 듯싶소! 그대가 제대로 들을 수 있게 큰 귀를 선물해주지!”[30] 같은 식으로, 당나귀 귀가 조롱이나 징벌이 아니라 오히려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귀’의 선물로 인식된다. 그리고 이 비밀을 누설한 죄를 지은 이발사는 “폐하! 제 생각엔 폐하의 귀가 커지신 것이 아무래도 백성들의 말을 잘 들으시라는 하늘의 뜻인 듯싶습니다.”라고 말하고, 그 ‘하늘의 뜻’을 받아들인 미다스 왕은 “백성들의 말을 잘 들어 주는 훌륭한 임금님으로 오래오래 존경을 받았대요.”라고 귀결한다.

셋째, 뒷이야기를 이어 쓰는 방식의 패러디 작품이 있는데, 이 경우는 일부서사에서 단순한 변개를 보인 작품보다 개작자의 의도가 훨씬 더 강하게 드러난다. 가령, <왕자님 귀도 당나귀 귀>[31]의 경우, 처음의 시작은 왕자의 탄생 부분인데 왕자는 태어날 때부터 큰 귀를 가지고 있다. 귀가 갑자기 자라나는 변고를 겪을 것도 없이 선천적인 불구의 형태인 것이다. 왕자가 탄생했다는 기쁜 소식에 왕은 “천하를 얻은 듯한 기분”이었지만 왕자의 귀가 크다는 말에 이내 걱정에 휩싸인다. 자신의 걱정거리를 대물림할 것을 예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궁궐 사람들이 왕자의 귀에 관한 비밀이 궁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조심하는 사정과는 아랑곳없이 왕자는 행복해했다. “아버지인 임금님의 귀가 컸기 때문에 임금님이 되려면 당연히 귀가 커야 되는 줄 알았던 것”이며 자신의 큰 귀를 도리어 뽐내는데, 이는 아무래도 이원수의 영향으로 보인다. 이원수의 개작동화에서 작품 말미에 첨기(添記)해 둔 “그리고 알뜰히도 숨기던 그 커다란 당나귀 귀를 이제는 조금씩 내놓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당나귀 귀를

30) 노은지 글 · 박열 그림(2005),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피노키오, 14쪽. 이하 인용 30쪽, 33쪽.

31) 전숙영(1997), <왕자님 귀도 당나귀 귀>, 서울대학교 아동학연구실 편저, 『왕자님 귀도 당나귀 귀』, 샘터. 이하 인용 13쪽, 15쪽.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8/05 11:12(KST)

가진 사람이 곧 임금님이라는 생각을 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32]에서 보듯이, 당나귀 귀가 처음에는 문제가 있는 귀로 인식되다가, 이제는 임금님만의 특별한 귀로 의미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원수의 개작에서는 백성 일반의 인식이었던 것이 왕자의 특별한 인식으로 부각된 정도이다. 왕자가 먼저 나서서 문제의 발언을 발설한 사람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 큰 귀를 자랑스러워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임금은 왕자의 이야기에 깨달음을 얻어 선정(善政)을 베푼다는 내용으로 귀결된다.

4. 이야기의 해석과 교육

구전설화나 고전이 전래동화나 고전동화라는 이름의 아동용 독서물이 될 때, 개작은 필연적이다. 실제의 원본작품이 향유되던 시대와 현대와의 간극이 클 뿐만 아니라, 실제의 향유 독자층과 아동독서물 독자층의 수용폭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동독서물의 경우 대체로 실제 독자와 도서의 구입자가 다르다는 특성을 지닌다. 이런 측면을 지나치게 의식하게 되면 실제 독자인 아동들이 읽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라, 실제구입자인 어른들이 읽히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울 위험이 크다. 물론 가장 바람직한 경우는 양자의 균형을 찾아 접점을 이루는 일이지만, 출판산업의 속성상 어른들이 읽히고싶어하는 방향으로 기우는 경향이 짙다. 그 결과 재미는 죽이고 교훈을 살리는 쪽으로 변개되는 일이 잦은데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또한 그런 편이다.

그러나 문학에서 교훈을 찾는 일이 무용한 것도 아니며 교육기의 아동들에게 필요한 일이어서 교훈의 강조만으로 문제를 삼을 수는 없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따라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의 개작에 드러난 문제,

32) 이원수, 앞의 책, 14쪽.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8/05 11:12(KST)

특히 그 해석과 교육에 관련한 문제를 살펴본다면 대략 다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원본의 해석과 정합성의 문제, 둘째, 문제해결 주체의 문제, 셋째, 디테일의 문제인데, 이에 대해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본의 해석과 정합성(整合性)에 있어서, 일단 원본 텍스트의 범위 설정에서부터 문제를 야기한다. 일연의 『삼국유사』든 벌핀치의 『그리스·로마신화』든 우리가 최초의 텍스트 형태로 확인할 수 있는 원본에서는 '경문왕 이야기'와 '미다스 이야기'가 독립적인 조목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부분이 따로 떼어진 것이 아니다. 『삼국유사』에서는 <제48대 경문대왕>으로, 벌핀치의 『그리스·로마신화』에서는 <제6장 미다스>로 각각 독립되어 있는 텍스트로 구성되어 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는 그 안에 있는 여러 삽화 중의 하나일 뿐이어서, 당연히 전체 맥락에서 읽어야 그 의미가 제대로 풀린다.

앞서 살폈듯이 그 전에 펼쳐진 일련의 서사진행을 따라 읽어가다 보면 귀가 커진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단서가 포착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뒤의 일부분만 떼어둔 채로 귀가 커졌다는 사실에만 집중하여 그 이유를 일종의 '공란(gap) 채우기 방식'으로 집어넣을 때 심각한 문제가 야기된다. 그러나 공란 채우기의 기본 전제는 노들먼이 지적했듯이 "일관성을 쌓아가는 전략"[33]에 있으며, 일관성 세우기의 주요 전략은 "갖가지 일관성은 모두 중심 일관성의 부분이자 변형이라는 점"[34]을 간과할 수 없다. 유감스럽게도,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교과서를 비롯한 거개의 재화 작품들에서 납득할 수 없는 비약을 보인다. 바로 앞에서는 불안에 떨며 뱀을 곁에 두어 외부인과의 접촉을 금해야 했던 사람이 말 한마디로 성군(聖君)으로 돌변한다거나, 음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신의 노여움을 사서 얻게 된 당나귀 귀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지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이

33) 이에 대해서는 페리 노들먼(2011), 『어린이 문학의 즐거움1』(김서정 옮김, 시공주니어)의 '3. 공란 채우기 : 일관성을 쌓아가는 전략'(105~132쪽), 참조.
34) 페리 노들먼, 위의 책, 132쪽.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8/05 11:12(KST)

다.

만약 교과서에서 경문왕 이야기든 미다스왕 이야기든, 얼마간의 축약을 용인하더라도, 그 원문을 좇아 기술한 후 “임금님 귀가 커진 까닭은 무엇일까요?”라고 했더라면, 서사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추론과 해석을 시도해볼 여지가 있고, 이에 따라 이 이야기를 향유하는 깊이가 더해졌을 텐데, 추론이 가능한 서사단락은 누락시킨 채 자의적인 내용을 첨가한 후, “(6) 임금님이 훌륭하게 된 까닭은 무엇인가요?”[35]라고 묻는다면, 나올 수 있는 대답은 한정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이 이야기를 통해 백성들의 말을 잘 듣는 왕이 훌륭한 왕이라는, 너무도 당연한 교훈 이외에는 놓치게 된다. 문학의 향유에 있어 “깊이란 이야기 세계가 제공하는 하나의 체험을 독자 개개인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36]인데, 원전의 무리한 개편에 개작자의 해석을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깊이를 볼품없이 낮추어버린 것이다. 당나귀 귀를 다양하게 해석할 여지를 차단함으로써 미다스왕의 이야기에 따르는 경우도 미다스왕이 황금에 진저리를 치고 전원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소거되면 왜 판의 소리를 좋게 들었는지 설명할 길이 막히고 만다. 가령, “옛날 한 왕국에 미다스 임금님이 살았어요. 번쩍번쩍 황금으로 지어진 성에는 반짝반짝 보석들로 가득했지만, 미다스 임금님은 별 관심이 없었지요.”[37] 같은 시작은 앞부분의 서사를 지나치게 축약한 나머지 미다스왕이 아폴론의 정교한 음악 대신 판의 자유분방한 음악을 선택하게 되는 과정을 놓치게 된다. 결국 당나귀 귀를 긍정적으로 판단할지 부정적으로 판단할지 선택하기 어려워서 원전의 온전한 향유가 어렵게 되는 데다, 여기에 원문에 있지도 않은 이발사의 뒷이야기까지 덧붙고 보면 완전히 다른 창작물로 접어드는 셈이다.

둘째, 첫째 문제와 연관하여 그 교훈의 핵심이랄 수 있는 문제해결 방법에도 주목해볼 수 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는 본래 말하려는

35) 『읽기 2-1』, 앞의 책, 50쪽.
36) 우에노 료(2003), 『현대 어린이문학』, 햇살과나무꾼 옮김, 사계절, 203쪽.
37) 노은지 글, 앞의 책, 7쪽.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8/05 11:12(KST)

자와 감추려는 자 사이의 갈등이 서사의 중심축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말하려는 자는 지위가 낮고, 감추려는 자는 지위가 높은 상태에서 억압되는 상황이 서사의 중핵이다. 그런데 아동물로 개작된 대부분의 이야기에서는 이런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사람이 최종적으로는 억압하는 위치에 있던 임금으로 설정된다.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잘 들어야 하고, 당나귀 귀가 바로 잘 들을 수 있는 것이라는 해석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해도, 그 말을 들은 후 비밀을 누설한 죄를 처벌하지 않고 그 지당한 일을 해내는 주체는 어김없이 임금이다. 이는 어린이가 등장하는 지혜담에서 어린이가 꾀를 발휘하여 원님 등의 잘못을 알게 해주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좋은 방향으로 선회하는 인물은 바로 주인공을 억압하던 주체인 원님 등인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즉, 윗사람이 불의를 행하고 아랫사람이 기지를 발휘하여 윗사람의 마음을 돌려놓는 서사진행이 흔한 패턴인데, 이 작품 역시 원작의 본래의도와 관계없이 설화의 단골주제인 지혜담으로 개편된 경우로 보인다.[38]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의 경우, 실제 구전되는 설화의 각편 가운데도 이런 방향의 개작이 보이기도 하여 주목을 요한다. 1980년에 채록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에서는[39] 중국의 황제가 당나귀 귀처럼 길어졌는데 그 비밀이 새나갈까 두려워서 황제의 머리를 빗겨주러 들어간 신하들마다 죽이곤 했다. 그러다가 한 사람에게 주의를 단단히 주고 살려보냈는데 그 사람이 산속에 가서 땅을 파고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를 말했고, 나중에 어떤 사람이 거기에서 자란 대나무로 단소를 불었는데 단소에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소리가 나왔다. 이는 전반부는 경문왕

38) 1차에서 6차까지의 국어 및 읽기 교과서 소재 설화의 주제를 분석한 논문에 따르자면, 지혜, 보은, 효행, 금욕, 성실, 우애 등의 순서로 나타나는 바(이윤남(1999), 「전래동화의 교재화 양상 연구」, 인천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임금님 귀 당나귀 귀> 역시 이런 경향과 궤를 같이한다.

39) 이항훈 구술,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조희웅 외(1981), 『한국구비문학대계 1-4(경기도 의정부시·남양주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15~118쪽.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8/05 11:12(KST)

이야기로, 후반부는 미다스왕 이야기로 섞여져 있는 꼴인데, 나중에 이 일이 황제에게 알려져 단소를 분 사람이 죽을 위기에 처했다. 그러자 전에 그 숲속에서 발설을 한 신하가 수죄(受罪)를 자처하고 나섰고 황제는 그 신하를 충신이라 하여 용서하기로 한다. “이런 충신을 쥑일 수가 있느냐? 다른 사람 같으면 자기가 말했지마는 그 사람 죽거나 말거나 내버려 둘 텐데, 자기를 죽여 달라고 하니 이런 충신은 없다.”[40]하면서 살려두는 관용을 베푸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난다.

물론, 설화에 등장하는 신하나 어린이는 왕이나 원님 앞에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존재이다. 그 때문에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윗사람의 선처(善處)에 기대는 방식 또한 어쩔 수 없다고는 해도, 이 서사가 갖고 있던 애초의 문제인 ‘마음대로 말할 수 없는 답답함’에 주목하지 못한다. 임금님이 변해서 나라가 좋아졌다는 식의 귀결은 당연시하면서도, “앞으로는 어떠한 말이든 하고싶은 대로 하라.”는 식의 구체적인 변화는 드러내지 않는다. 자신의 상황과 관련하여 드러낼 수 없는 흠결을 지녔던 임금의 문제를 풀어냈을 뿐, 그 해결과정에서 그간 아무 잘못 없이 속앓이를 해야했던 백성의 문제는 자취를 감추어버린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와 <이야기 주머니>를 나란히 배치한 해당 교과서에서조차 그런 배려를 찾아볼 수 없었다.

셋째, 비록 재화 과정이 서사의 근간만 취하고 세세한 부분은 다시 써나가는 작업이라 하더라도 원본이 갖고 있는 미세한 결을 놓친다면 문학 작품으로서는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는 그 제목이 지시하는 대로 대나무밭에서 흘러나온 “우리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말이 기이함의 원천이다. 그런데 이 기이함의 근저에는 엄연한 사실을 유포하지 못하게 강요하는 폭압이 존재하며, 그 강압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표지는 발설의 시점이다. 『삼국유사』의 원문에 따르자면, 복두장이가 “장차 죽을 때(將死)”[41]였다. 죽을 때가 이르지 않고서는 겁이 나

40) 같은 이야기, 118쪽.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8/05 11:12(KST)

서 발설할 엄두를 못 냈다는 뜻이다. 또 하나의 표지는 대나무를 베어낸 뒤의 변화이다. 대나무를 베어내고 산수유를 심은 뒤에는 거기에서 들려나오는 말이 변하며, 그 과정을 통해 억압을 해도 아주 막아낼 수 없는 심각성을 드러낸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표지로 개작된 작품을 읽어내려가다보면 뜻밖의 사실을 목도하게 된다. “신하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대나무 숲으로 들어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42]라거나, “노인은 어느 날 마음이 답답하여 바람을 쐬러 성문 밖으로 나갔습니다.”[43]는 식으로 그 심각성이 심하게 축소되고 있다. “이야기를 발설할 경우에도 죽음에 처하게 되고, 이야기를 발설하지 않았을 때에도 소통 욕망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되는”[44] 절박감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두 번째 표지의 경우 더욱 분명하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같다네!”였지만, 대나무를 베어버리고 산수유나무를 심은 뒤로는 “임금님 귀는 길다.”[45]로 변하고 있다. 이런 변화를 두고 어떻게 해석할지는 이론이 분분할 수 있지만[46] 똑같은 소리가 나지 않은 것만은 분명하고, 여기에 찬자 일연의 시각이 숨어있다고 할 수 있다. 상식적인 견지에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같다.”는 말에는 임금을 당나귀에 비유하는 불경함이 엿보이며, 결과적으로 조롱의 성격이 짙다. 그러나 임금님이 그 소리를 싫어하여 대나무를 베어내고 산수유나무를 심자, 그 소리가 이내 “임금님 귀는 길다.”로 순화되는 꼴을 취한다. “길다”는 말에는 특별히 조롱하는 뜻이 없고,

---

41) 일연, 『삼국유사』, 같은 조목.
42) 『읽기 2-1, 앞의 책, 47쪽.
43) 이원수, 앞의 책, 12쪽.
44) 김혜영, 「제3장. 서사의 본질」, 우한용 외(2001), 『서사교육론』, 동아시아, 120쪽.
45) 원문은 “吾君耳如驢耳”에서 “吾君耳長”으로 명백한 차이를 보인다. -일연, 『삼국유사』, 「기이2」, <제48대 경문대왕>조.
46) 정민은 이것이 약화가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표현이라 보았고(정민(2012), 『불국토를 꿈꾼 그들』, 문학의문학, 370쪽), 이강엽은 “언어상으로 완곡하게 표현하는 약화”(이강엽, 앞의 논문, 146쪽)로 보았다.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8/05 11:12(KST)

특히 귀가 크다거나 길다는 것은 전통적으로 귀인의 관상으로 통하는 만큼, 약화된 표현임이 분명해 보인다. 이는 임금의 그런 노력으로 인해 그 소리를 약화시킬 수는 있어도 아주 없앨 수는 없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점에서 많은 개작 작품에서 산수유나무로 바꿔 심은 이후에도 여전히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가 똑같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점은 유감이다. 특히 고전으로서의 『삼국유사』를 내세운 아동독서물에서는 그 변화가 또렷이 보이는 데 비해보면 더욱 또렷하다. 전자의 경우, "그리고 그 자리에 대신 산수유 나무를 심었더니 그 다음에는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임금님 귀는 길다!""[47]거나, "'우리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처럼 생겼다'는 말보다는 조금 점잖게 '우리 임금님 귀는 길다'고 소리쳤던 것입니다."[48]라는 식으로 정확하게 그려내는 데 반해서, 후자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아무 변화 없이 반복되는 것으로 그려진다.

> 그 후 그 자리에 한 농부가 산수유나무를 심었습니다. 산수유가 자라서 우거졌을 때, 그 농부는 산수유 밭에서 또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49]
>
> 화가 난 임금님은 대나무를 모조리 베어버리라고 명령하였습니다.
>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 그러나 대나무를 베어낸 자리에서는 여전히 이 소리가 났습니다.[50]
>
> 그 자리에 산초나무가 자라나서, 바람이 불 때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싸그락, 싸그락.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싸그락, 싸그락." 하는 소리를 내더래.[51]

47) 일연 지음, 이강엽 엮음(1996), 『이 일을 이룬다면 무엇인들 두려우랴』, 웅진출판, 129쪽.
48) 민족문화추진회 엮음(2001), 『어린이 삼국유사 5』, 아침나라, 16쪽.
49) 이원수, 앞의 책, 14쪽.
50) 『읽기 2-1』, 앞의 책, 47~48쪽.
51) 서정오, 앞의 책, 23~24쪽.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8/05 11:12(KST)

보다시피 원문과는 달리 대나무를 베어낸 뒤에도 똑같은 소리가 되풀이된다. 현실에 비추어볼 때 권력자가 강압적인 방법으로 말문을 막아놓으면 일단은 진정국면으로 접어드는 게 상례이다. 다만 곧 얼마 안 있어 그 때문에 도리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변형된 소문이 떠돌게 되는 문제가 일어날 뿐이다. 이 점에서 진실을 말하고자 하는 욕구는 어떤 힘으로도 막아낼 수 없다고 단정 짓는 텍스트보다, 강압적인 힘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막아낼 수는 있지만 완전히 막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텍스트가 훨씬 더 세심한 고급텍스트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아동물로 개작된 많은 작품들에서는 윤색을 통해 도리어 분량을 늘렸으면서도 정작 중요한 부분에서는 세심한 결을 놓쳐버린 것이다.

4. 마무리

이 논문의 목적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를 바르게 해석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이려는 것이다. 이 이야기가 『삼국유사』와 그리스·로마신화에서 나오는 이야기로 알려지고 있지만, 실제 아동용으로 다시 쓰인 작품은 원문에서 많이 벗어난다. 이런 점에 착안하여, 이 설화를 원문에 제시된 전체 텍스트에서 어떻게 해석할지 모색하고, 그 해석에 따라 개작 양상을 살피고, 이를 교육에 적용할 주안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첫째,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의 근원이 되는 『삼국유사』와 그리스·로마신화를 살폈다. 『삼국유사』의 경문왕 이야기는 경문왕이 왕이 되기 위해 우여곡절을 겪었고, 그로 인한 불안감 때문에 외부를 차단하여 뱀을 곁에 두어야 했다. 그 후 당나귀 귀가 되는 변고를 겪는 것은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여러 의견들에 지나치게 귀를 기울이게 되는 상황을 대변한다. 그러다가 마침내 화랑들이 뜻을 모아 올바른 통치 방식에 대한 곡을 써 아래에서부터 위로 계통을 밟아나감으로써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또, 그리스·로마신화의 미다스왕 이야기는 미다스왕이 선행에 대한 답례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8/05 11:12(KST)

로 황금손을 갖게 되지만 그로 인해 불행이 찾아오고, 그에 염증을 내고는 자연으로 돌아가 아폴로와 판의 음악 대결에서 판의 음악이 낫다고 평하면서 신의 노여움을 사서 당나귀 귀의 수모를 겪게 된다. 이는 음악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조롱이면서, 신의 권위에 굴복하지 않는 인간성의 발현이기도 하다.

둘째, 아동물에서의 재화(再話) 양상에 대해 살폈다. 우선,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에서는 왕의 귀가 커진 것을 도리어 백성들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는 능력으로 해석함으로써 왕을 선한 통치자로 변화시켰다. 결국, 훌륭한 통치자는 아랫사람의 소리를 잘 들어야 한다는 교훈을 전하려는 것이 개작의 방향인데, 이 탓에 이야기 본래의 미덕을 많이 잃어버렸다. 이런 양상은 교과서 밖의 아동물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는데, 그런 가운데 몇몇 아동물에서 원작의 훼손이 없이 그대로 살려낸 작품이 눈에 띈다. 이 경우, 하고싶은 말을 못하는 답답함과, 그렇게 답답한 상황을 강요하는 억압을 가능한 한 원문 그대로 살리고자 노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개의 아동물에서는 비밀 누설의 죄를 뒤집어쓰고 궁지에 몰린 약자 측에서 권력자의 선의를 유도해내는 기지를 발휘함으로써 문제를 풀어낸다. 나아가, 뒷이야기를 붙여 쓴 패러디 작품 등에서도 여전히 당나귀 귀를 왕의 선정(善政)과 연결 짓는 관행을 답습한다.

셋째, 이야기의 해석과 교육에 관해 살폈다. 먼저, 원본의 해석과 정합성에 있어서 '경문왕 이야기'와 '미다스 이야기' 전체를 다룬 작품이 많지 않다는 점이 문제였다. 앞부분의 서사를 지나치게 축약한 나머지 경문왕이나 미다스왕이 당나귀 귀를 갖게 된 이유를 추론할 수 없게 되고, 서사 문맥에 따른 독자의 판단이 아니라 개작자의 의도에 따라 끼워맞춰 읽는 식으로 읽힐 소지가 크다. 다음으로, 문제해결 방법에서 문제해결의 주체로 나서는 사람이 임금으로 설정되어 원작의 본의에서 벗어난다. 자신의 상황과 관련하여 흠결을 보였던 임금의 문제를 풀어내는 데 집중하여 불필요한 속앓이를 해야했던 백성의 문제는 자취를 감추어버린 셈이다. 끝으로, 재화 과정에서 서사의 세세한 결을 놓치는 경향이 있다. 일례로,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8/05 11:12(KST)

대나무를 베어버림으로써 “우리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가 “임금님 귀는 길다!”로 약화되는 부분들이 무시되고 있는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나 아동독서물로의 개편에서 원본이 고수될 수도 없고 그렇게 되는 것이 꼭 바람직한 일도 아니다. 그러나 설화의 형식으로 오래 전승되어온 작품일수록 그 안에 담긴 의미가 크기 마련이며, 특별한 이유 없이 개작된 작품으로 교육을 하려 들 때 득보다는 실이 많아서 주의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교육부(1989), 『읽기 2-1』, 교육부.
김혜영(2001), 「제3장. 서사의 본질」, 우한용 외, 『서사교육론』, 동아시아.
노은지(2005) 글 · 박열 그림,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피노키오.
민족문화추진회(2001) 엮음, 『어린이 삼국유사 5』, 아침나라.
서정오(1995), 『옛 이야기 들려주기』, 보리.
_____(1997) 글 · 한지희 그림,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보리.
신예영(2011) 글 · 유혜광 그림,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새샘.
심우장(2012), <이야기주머니>항, 『한국민속문학사전 : 설화 2』, 국립민속박물관.
심치열(2005), 「『삼국유사』 소재 설화의 서사적 계승 연구 -경문왕 설화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139, 국어국문학회, 301~335쪽.
염희경(2011), 「이원수의 전래동화 연구를 위한 기초 고찰」, 『아동청소년문학연구』 9, 아동청소년문학학회, 191~227쪽.
이강엽(2016), 「『삼국유사』 <제48대 경문대왕>조 텍스트의 안과 밖」, 『구비문학연구』 43집, 한국구비문학회, 127~158쪽.
이관일(1966), 「경문왕 설화와 카타르시스」, 『국어국문학』 31, 국어국문학회, 120~121쪽.
이미애(2006) 글 · 이현아 그림,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아이즐.
이원수(1989),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웅진출판, 1989 개정판, 웅진출판, 이원수아동문학전집23.
이윤남(1999), 「전래동화의 교재화 양상 연구」, 인천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8/05 11:12(KST)

이항훈(1981) 구술,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조희웅 외, 『한국구비문학대계 1-4 (경기도 의정부시·남양주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일연, 『삼국유사(三國遺事)』, 「기이(기(紀異) 2」, <第四十八代 景文大王> 조.
___(1996) 지음, 이강엽 엮음, 『이 일을 이룬다면 무엇인들 두려우랴』, 웅진출판.
장일규(2011), 「응렴의 결혼과 그 정치적 의미」, 『신라사학보』 22, 신라사학회, 175~214쪽.
전숙영(1997), <왕자님 귀도 당나귀 귀>, 서울대학교 아동학연구실 편저, 『왕자님 귀도 당나귀 귀』, 샘터.
정민(2012), 『불국토를 꿈꾼 그들』, 문학의문학.
정운기(1996),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의 구조와 지도 방안에 관한 연구」,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조동일(1989) 외, 『한국구비문학대계 별책부록(Ⅰ) 한국설화유형분류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조범환 · 문왕(2004),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푸른역사.
조희웅(1994),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설화」, 이상익 외, 『고전문학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집문당.
홍순철(1996), 「전래동화에 나타난 봉건적 가치관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불핀치(1973), 『그리스 로마 신화』, 손명현 역, 동서문화사, 1973.
오비디우스(2005), 『원전으로 읽는 변신 이야기』, 천병희 옮김, 숲.
우에노 료(2003), 『현대 어린이문학』, 햇살과나무꾼 옮김, 사계절.
페리 노들먼(2001), 『어린이 문학의 즐거움1』, 김서정 옮김, 시공주니어.

回 이강엽
❀ 소 속: 대구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 주 소: [705-715]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219
❀ 전자우편: kylee@dnue.ac.kr

◎ 논문접수: 2017년 11월 24일
◎ 논문심사: 2017년 12월 06일 ~ 12월 15일
◎ 게재결정: 2017년 12월 27일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8/05 11:12(KST)

<Abstract>

The Interpretation and Education of "The King's Ears are Donkey Ears."

Lee, Kang-yeop

(Daeg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mprove educational effectiveness by appropriately interpreting "The King's Ears are Donkey Ears"

First, the *Samkuk Yusa* and the *Greek and Roman Mythology*, the origin of "The King's Ears are Donkey Ears", are exhibited. The story of King Gyeong-mun shows how the king learns to govern throughout a complicated accession process, a night with a snake, trouble with the donkey's ears, and a song of "Hwarang"s. In the story of King Midas, everything he touches turns into gold in return for good deeds, but he goes back to nature as that golden touch only brings him misfortunes. Back in nature, at a music competition, King Midas favors Pan's music over Apollo's, and the furious god Apollo gives him a pair of donkey ears.

Second, the aspects of rewriting children's books are analyzed. In textbooks, the donkey ears are interpreted as the ability of carefully listening to the people. This aspect is also confirmed outside the textbooks, and problems are solved by taking a tact of inducing the good faith of the superior, in the perspective of the inferior who is in trouble of revealing a secret.

Third, the interpretation and the education of the story are studied. First of all, since there are not many works of the whole coherent story,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8/05 11:12(KST)

the story is likely to be read according to the authorial intent. Next, in that the problem-solver is set to the king, it is off the original purpose. Finally, in the process of rewriting, it tends to miss out the finer details of the narration.

Keywords: “King's ears are donkey ears.” *Samkukyusa* , *Greek and Roman mythology*, King Gyeong-mun, King Midas, rewriting, education of folktale.

삼성현역사문화관 | IP:183.106.106.*** | Accessed 2021/08/05 11:12(KST)